

- 2013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

시 정 연 설 문

2012년 11월 26일
제22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존경하는 강원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방향과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시고 계신 도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강원도의 이해와 자존심이 걸린 춘천-속초간 철도,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등의 현안 과제에 대해 직접 최일선에서 뛰어 주시고 진정어린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두 가지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3번의 탈락 끝에 결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그동안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진행된 국가 발전전략에서 철저히 누락됐던 강원도 특히 동해안권에 새로운 제조업 발전 거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미 지정된 다른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자유구역도 성공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성공 모델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개발에 1조 7천억을 투자하기 위한 설계 예산을 확보한 것도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해안의 항만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의 항만들은 그 규모가 작고 역할이 중복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러시아-일본-그리고 북극항로를 통해 멀리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항만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각각의 항만별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최적화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비 예산은 우리 도가 목표로 삼았던 4조 4천억원 이상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철되지 못한 예산들은 춘천-속초 간 철도, 올림픽을 위한 식수 전용 댐과 상수도 시설,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문화 예산 등입니다.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출이 다른 모든 시도의 수출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전선에서 애쓰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올해 수출 목표로 삼았던 20억불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원주 기독병원과 함께 이른바 닥터 헬기-응급의료헬기를 도입하고 중증 외상센터를 국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장애율을 크게 줄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소규모 수학여행을 유치했으나 정책의 변화로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전체의 20%를 넘겨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 정보 체계, 교육 체계, 사후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잘 채워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기장 시설이 나중에 큰 적자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 시설들을 운영할 주체들을 기업들 중심으로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더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 오투리조트 문제, 5개 도립 의료원 문제, 골프장 갈등 해소, 강원 FC의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음을 사과드립니다. 다만 각각의 사안에 대해 큰 틀의 해결 방향이 설정됐고 꾸준히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이니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들이 이미 사업 또는 허가가 완료되거나 부실이 장기간 진행된 사안이니 만큼 본래 없었던 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 당사자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척에서 두 건의 가스폭발사고로 55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삼척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25억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도민여러분들과 의원님들, 기업인,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피해보상, 삼척 가스폭발사고, 전방 지역의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일부 6·25 전쟁 피해자들 등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된 도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가 도민들의 고통을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앞장서서 정부를 이끌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해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강원도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즉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우리 도의 발전 전략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오던 강원도 지역별 권역별 발전 정책을 모두 재점검하겠습니다. 정책의 규모를 키우고 질을 높이는 한편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추가하여 종합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정부와 해 나갈 정책들은 강원도의 존재양식을 바탕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제까지 분단으로 인한 폐쇄와 고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낙후였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평화의 땅 그리고 개방되고 열린 공간 그리고 그 결과로서 번영의 장이 될 것입니다.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정책으로 강원도 평화 특별 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남북교류교부세와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매년 3,000억원의 특별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내년은 DMZ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60년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을 계기로 DMZ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DMZ 60주년 행사 등 103개 사업 1,327억을 투자하여 DMZ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접경지역 개발 계획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관광 코스로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미 올해 개방된 지역에 4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코스를 개발하고 더 넓게 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금강으로 가는 경원선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강릉 옥계 비철고속 단지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동북아 경제 물류 중심이 되도록 철도-도로-항만-항공 노선을 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동북아의 중심은 해양국가에서 대륙국가로 그 중심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동북 3성과 훈춘-나진선봉지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톡을 적극 개발하고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흐름을 잘 타고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발전 전략을 더 발전시켜 새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먼저 춘천-철원-화천-양구권역의 바이오-나노-플라즈마 산업은 그동안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연구 투자를 더 늘리고 기업과 연결하여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횡성-홍천권 첨단 의료기기 산업도 대선 후보들에게 특별법을 통해 국가 산업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 전용 공단과 국가 첨단의료산업 진흥원의 설립을 구체화하고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강릉 동해안권은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종합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제조업 유치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민간 자본에 의한 쇼핑몰, 중국 음식점, 상설 공연 등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중단됐던 백두산 항로는 내년 1월에 재개한 후 이를 더 확장하여 백두산-금강산-설악산, 우리나라의 명산을 모두 잇는 항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양양 공항은 백두산 삼지연 공항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0대 도시들과 연결하여 꼭 살려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에는 올림픽 특구 계획을 잘 세우고 에너지 중심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올림픽 특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을 마치겠습니다. 특구를 채울 구체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중심 정책은 수소융합 연구단지 조성 등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으로 진전 시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큰 틀의 발전전략 외에 소외된 도민이 없는 정책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폐광지역에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자립형사업, 주민창업기업 육성, 설악동 등 설악권의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전통 시장의 사기를 높이고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 풀뿌리기업-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이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민금융이 되도록 현장으로 찾아가서, 즉시, 간소하게 대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6·25전쟁에서 부상을 입거나 지뢰를 밟아서 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어르신들, 고립된 지역에서 혼자 살면서 자살 유혹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갖 고자 하시는 진폐자 어르신들, 보호자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등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원도가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전기 없이 생활 중인 모든 가구에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문제가 2세들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인순이 학교를 시범적으로 성공시킨 후에 다문화 학교를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도 지원하겠습니다. 탈북자 학교도 교육청과 함께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살률 1위, 장애율 1위 등 부끄러운 수치를 벗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초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1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내국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3조 2,59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분이 늘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4,578억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초는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늘지 않은 데 반해 새롭게 나가야 할 돈은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때문에 최소 90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재정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 모두가 동참해 120억원의 예산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존 투자사업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2016년까지는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과 동계올림픽 시설투자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도내 건설경기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올해 (3조 370억원)보다 7.3% 늘어난 3조 2,593억원으로

- ◆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29.6%인 9,660억원,
- ◆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8.6%인 1조 5,853억원,
-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4.4%인 1,428억원,
- ◆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7.4%인 5,6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금년(4,091억원)보다 11.9% 늘어난 4,578억원으로

- ◆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92억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338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125억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2,0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인구 증가 목표, GRDP 목표, 성장률 목표, 국비확보 목표, 수출 목표, 관광객 유치와 관광 수입 목표, 기업 유치 목표, 농어민 소득 목표, 복지 목표 등 강원 도정의 목표를 높이 세우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틀림없이 달성해 나가는 행동 방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 목표를 도민 모두 공유하고 조직화하고 정부를 끌어 들이고 민간 부문을 설득하는 일을 치열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관을 돌파하는 주체적인 정부입니다.

이것이 지역 자치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민간부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 도와달라는 식의 행동 방식을 벗어나
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이 따라 오도
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의해 주셔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인내심으로 지켜보아 주고 계신 도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